

【특집】

한국 불교의 생명·생태 사상과 그 실천 운동

이도흙

【주제분류】 불교생태론

【주요어】 전 지구 차원의 환경위기, 한국 불교, 화쟁철학, 도법, 수경, 원효, 의상, 대현, 생태

【요약문】 전 지구 차원의 환경 위기를 맞아 한국불교는 어떤 대안이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의상의 시간관을 생명론과 결합하면, 생명이란 구세(九世)의 업(業)에 따라, 기존의 경험과 기억과 업이 축적되어 DNA 사슬에 유전 정보가 새겨진 몸에 식(識)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생명체 및 자연환경과 서로 조건이 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에코시스템 속에서 잠시나마 가유(假有)의 가합태(假合態)로서 오온(五蘊)을 형성하여 대사(代謝)를 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경험한 기억과 지은 업을 유전자와 알라야식에 담아 종족보존을 위한 자기 복제를 하는 가운데 서서히 진화하면서 윤회를 되풀이하는 유기체다.

원효의 화쟁철학을 응용하면, 모든 생명은 서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관계다. 모든 생명은 선형적으로 서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서로 조건이 되고 영향을 미쳐,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된다. 씨 스스로는 공(空)하지만,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서 사과를 맺는 것처럼, 이 생명은 저 생명의 먹이가 되어 다른 생명을 살게 한다. 에코 시스템 속에서 공(空)이 생멸변화의 조건이 되고, 이 때문에 생태계의 순환과 균형이 가능해진다. 원효의 진속불이(眞俗不二)를 생태론으로 응용하면, 죽고 사라져 가는 생명의 아픔을 자신의 생명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조건이 되고 의지가 됨을 깨닫고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共感)하는 것이다. 죽고 병드는 생명들을 보면서 마치 내 몸이 죽고 병드는 것처럼 아픔을 공유하는 순간 내 몸 안에 자리하던 불성(佛性)

이 드러난다. 이것이 생태계에 대한 깨달음의 눈이요[圓成實性], 이 순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둘이 아니요 하나요, 중생이 곧 부처다.

이런 한국불교의 생태적 인식은 현재에까지 계승되어 도법과 수경 스님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실천되고 있다. 도법과 수경스님이 펼친 생명·생태운동 및 평화운동은 무엇보다도 국민과 시민운동 진영에 생태적 패러다임과 삶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앞으로 이 운동은 개인의 깨달음과 시스템 및 체제의 개혁을 종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제국과 자본주의, 토건카르텔의 탐욕에 포획될 수 있기 때문이다.

I. 머리말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방사능은 편서풍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유럽, 이어서 다시 아시아에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인이 공포에 떨었다. 이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아주 사소한 실수나 사고로도 전 지구의 자연환경이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가운데 40%가량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있고, 살아남은 생명들, 심지어 북극곰까지도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¹⁾

지금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지속시키던 빈틈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무위(無爲)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빈틈[虛]을 만드는 것이며, 이 빈틈이 있을 때 자연(自然)은 말 그대로 스스로 그렇게 존재한

1) 2008년 10월에 국제자연보전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44,838종의 대상 동식물 가운데 38%인 16,928종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발표하였다. [www.iucn.org/about/work/programmes/species/red_list/index.cfm?NewsID=1695.] UNDP는 2007/2008년 연례보고서에서 현재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65만 년 동안 지구 역사상 최고인 380ppm에 이르며, 21세기 중에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5도 이상 오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Fight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New York, 2007, pp.31~32].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긴밀하게 연관된 에코시스템(eco-system)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지구에서 그 빈틈들이 곳곳에서 사라져버렸고 급속히 오염되고 있다.²⁾ 2008년엔 도시 인구가 농촌인구를 초월하였다. 쓰레기를 버려 엔트로피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지구상의 빈틈을 빠른 속도로 없애버리는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는 환경문제 하나만으로도 인류 문명이 머지 않아 종말을 고할 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처럼 전 지구 차원의 환경 위기를 맞아 한국불교는 어떤 대안이나 지혜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한국 불교에 생명과 생태 사상과 관련을 맺는 사상이 있는가. 또 이는 현재로 계승되고 있는가. 선의 생명·생태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잘 정리한 것이 있으므로 이에 미루고,³⁾ 교종, 그 중에서도 원효(元曉: 617~686), 의상(義湘: 625~702), 대賢(?-?) 등 신라의 불교철학에 나타난 생명과 생태 사상을 살피고, 21세기 오늘 이를 계승하여 생명·환경운동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는 도법과 수경스님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공과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II. 신라 불교 철학의 생명·생태론적 해석

한국인은 굶주리는 와중에도 새들을 위해 까치밥을 남겨두고 열매를 뺐다. 고유 사상인 풍류도에선 모든 생명은 물론이고 산과 내 등 천지만물에 신격이 깃든 것으로 생각하고 숭배하였다. 불살생(不殺生)을 계율로 하는 불교가 들어와 전통 사상과 합쳐지자 생명에 대한

2) 강은 이온작용, 미생물의 활동, 식물의 증근속 흡수 등으로 흐르면서 자연정화를 한다. 어떤 강이 일정 구간에서 자연정화할 수 있는 양이 100톤인데 90톤의 폐수가 버려진다면 10톤의 빈틈이 있어 아무리 폐수를 버리더라도 그 강은 1급수를 유지하여 버들치가 노닐고 다슬기가 꿈틀거린다. 하지만 100톤을 넘겨 빈틈이 사라지는 순간 급속히 오염되어 생명이 죽어버린다. [이도흠, 『문명사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페러다임의 모색』, 『불교평론』 40호, 2009년 가을호. 42면].

3) 서재영, 『선의 생태철학』, 서울: 동국대출판부, 2007.

존중심은 더욱 강렬해졌다. 아쇼카 왕 이후 권력자가 불살생의 이상을 구호로 외치고 이데올로기로 이용할 뿐이었고 이를 자신은 물론 전 백성에게 실천할 것을 명한 예는 드물다. 하지만, 한국사에서는 세 명의 군주, 곧 백제의 法王(?~600년, 재위: 599년~600년), 신라의 法興王(?~540년, 재위: 514년~540년)과 聖德王(?~737년, 재위: 702년~737년)이 이를 실천하였다. 법왕은 살생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와 새매를 놓아 주도록 하였으며, 온 나라 안에서 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도구들을 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였다.⁴⁾ 법흥왕은 16년에 살생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으며,⁵⁾ 성덕왕도 4년에 같은 명령을 내렸다.⁶⁾

이런 바탕에서 삼국의 불교는 생명을 존엄한 것으로 여기고 온 우주의 삼라만상이 서로 조건이 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업에 따라 시간적으로도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서양의 패러다임에서는 생명을 “DNA 사슬에 새겨진 유전 정보에 따라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외부와 끊임없이 대사를 통해 물질(특히 단백질)을 만들며 살아가다가 자기복제를 하면서 진화하는 유기체”⁷⁾라고 물질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식(識, *viññāṇa*)을 필수 조건으로 삼아 名色이 있다.”⁸⁾라며, 수정란에 식이 들면서 정신인 명(名, *nāma*)과 육체인 색(色, *rūpa*)의 복합체인 명색(名色, *nāmarūpa*)이 될 때 생명은 시작한다.

모든 생명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생명들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왜 생명은 크고 작은 외형에서 강하고 약하며,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에 이르

4) 『三國史記』, 『百濟本紀』, 法王 一年條: “冬十二月, 下令禁殺生, 收民家所養鷹鶴, 放之, 漁獵之具焚之”.

5) 『三國史記』, 『新羅本紀』, 法興王 十六年條: “下令禁殺生”.

6) 『三國史記』, 『新羅本紀』, 聖德王 四年條: “下教禁殺生”.

7) *Encyclopaedia Britannica, Macropedia*, Vol.10., 1975, pp.893~894.

8) *Maha-nidana Sutta, Digha Nikaya*. (tr). Thanissaro Bhikkhu (www.accesstoinsight.org/tipitaka/dn/dn.15.o.than.html).

기까지 차이가 있을까. 이는 업(業)이 깃들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으로[意業], 말로[口業], 몸으로[身業] 짓는 업에 따라 차이를 갖는다.

여기에 의상의 시간관을 응용하면, 서양의 생물 개념과 결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한 생명에는 구세(九世)의 업이 어우러져 있고 업력이 십세(十世)로 작용하고 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체와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 스스로 닦은 마음은 문화유전자(meme)에 새겨지고, 각자 생명들이 다른 생명을 포함한 자연환경에 대하여 선택하고 적응하고 대응한 몸은 생물유전자(gene)에 깃든다. 38억 년의 지구 생명체 역사를 통하여 한 생명이 다른 생명체와 상호작용을 한 것은 생물유전자와 문화유전자를 남기며 수 십억 년 동안 자기복제를 거듭하면서 오늘 나의 생명체로 이어지고, 지금 내가 다른 생명체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나의 몸을 형성하다가 미래의 생명으로 계승된다.9)

9)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대폭발을 하여 성간물질이 흩어졌다 모이며 은하계를 만들고 그 은하계에 태양계와 지구가 만들어졌고, 38억 년 전에 지구의 몇몇 물질이 어떤 원리와 자극에 따라 생명을 형성하게 되었다. 과거의 과거는 137억 년 전 우주 탄생부터 생명이 만들어지기 직전이며, 과거의 현재는 38억 년 전에 업력이 작용하고 식이 깃들여 생명이 만들어진 그 순간이며, 과거의 미래는 그 생명이 현생에 지은 업에 따라 자기복제를 하고 진화를 하여 에코 시스템(eco-system)이 형성된 그 후의 상황이다. 현재의 과거는 38억 년 동안 모든 생명이 자연환경 및 다른 생명체와 서로 조건이 되고 관련을 맺으면서 이에 따라 진화를 하면서 21세기 오늘의 생명체에게 유전자 정보를 물려주며 오늘날의 생명계를 이룬 것이고, 현재의 현재는 지구상의 온 생명들이 다른 생명 및 자연환경과 서로 어울리고 상호작용을 하며 업을 쌓는 이 순간이다. 현재의 미래는 오늘 다른 생명 및 자연환경과 서로 어울리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업을 쌓고 이것을 자기복제하여 전승하고 진화를 하여 초래될 가능태이다. 미래의 과거는 지구상의 생명들이 지금 업을 쌓아 유전정보를 기억하고 전승하는 것이며, 미래의 현재는 그 업과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전승된 생명이 살면서 업을 쌓는 그 순간이며 미래의 미래는 그렇게 하여 다시 업과 유전정보를 물려줘 달라진 생명이 다른 생명 및 자연환경과 어울려 형성할 새로운 에코시스템이다. 과거의 과거에서부터 미래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구세를 연기에 따라 업력과 유전정보가 작용하며 에코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니 이것이 십세(十世)이다. 이에 해당하는 의상의 글은 “끝이 없는

이렇게 볼 때, 생명이란 구세(九世)의 업(業)에 따라, 기존의 경험과 기억과 업이 축적되어 DNA 사슬에 유전 정보가 새겨진 몸(識)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생명체 및 자연환경과 서로 조건이 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에코시스템 속에서 잠시나마 가유(假有)의 가합태(假合態)로서 오온(五蘊)을 형성하여 대사(代謝)를 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경험한 기억과 지은 업을 유전자와 알라야식에 담아 종족보존을 위한 자기 복제를 하는 가운데 서서히 진화하면서 윤회를 되풀이하는 유기체다.¹⁰⁾

이렇듯 한 생명은 그것 그대로 다른 생명과 무한한 연관을 가지면서 자기 의미를 갖는 존재이기에 불교는 모든 생명에 불성(佛性)이 있다고 보고 불살생(不殺生)의 계를 추구한다. 불교는 연기론과 윤회설에 입각하여 동물은 물론이거니와 식물과 흙과 물까지 방생하는 윤리를 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제기되는 문제는 식물 내지는 광물에 까지 불살생을 확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식물을 해치는 것도 계를 범하는 행위가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식물도 중생의 거주처이기 때문이다.¹¹⁾

이보다 더욱 그럴듯한 이유는 모든 생명이 연기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원효 화쟁의 불일불이(不一不二)론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사과와 씨의 관계처럼 이 생명과 저 생명은 같지 않으므로 하나가 아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 있어서 저 생명이 삶을 살고, 저 생명이 죽으면 이 생명도 영향을 받으며, 저것이 죽으면 이 생명도 죽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삶과 죽음만이 아니라

무량겁이 곧 한 생각이요/한 생각이 곧 무량겁이어라./九世, 十世가 서로 相卽하여/어지러이 뒤섞이는 일 없이 따로 떨어져 이루어져라.(無量遠劫卽一念 一念卽是無量劫 九世十世互相卽 仍不雜亂隔別成)이다. [義湘 『華嚴一乘法界圖』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編, 『韓國佛教全書』(이하 '韓佛全'으로 약함) 동국대출판부, 1979, 제2권, 1-上]

- 10) 상세한 논증은 이도흠, 『생명 위기의 대안으로서 불교의 생명론과 생태론』, 『생명의 이해-생명의 위기와 길찾기』, 서울: 동국대 출판부, 2011, 279-285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 11) 김성철, 『불교의 생명 개념과 불살생계』, 『불교평론』, 제37호, 2008년 12월 10일, p.183.

그것의 호흡마저도 주변의 자연환경과 생명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다시 그 미생물의 삶과 죽음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모든 생명은 선형적으로 서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서로 조건이 되고 영향을 미쳐,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된다. 그러니 둘도 아니다. 씨 스스로는 공(空)하지만,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사과를 맺는 것처럼, 이 생명은 저 생명의 먹이가 되어 다른 생명을 살게 한다. 물고기가 죽으면 그를 미생물이 분해하고 미생물을 물고기가 먹는다. 생태계에서는 이 순환이 영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 에코 시스템 속에서 공(空)이 생멸변화의 조건이 되고, 이 때문에 생태계의 순환과 균형이 가능해진다.¹²⁾

그럼 다음의 문제는 인간이 다른 생명에 대해 갖는 윤리의 문제다. 다른 생명을 죽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자신의 유전자를 더 많이 복제하려는 욕망을 가진 인간이 생명의 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는 업이다. 시간이 업과 얽히면서 업은 시간에 따른 존재의 변이가 정의롭게 일어나도록 통제하는 원리가 된다. 짧고 직선적인 시간관만으로 보면, 착한 자가 고통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손해 보는 부조리로 만연한 곳이 이 세상이다. 그러나 길고 둥그런 시간관으로 보

12) “열매와 씨가 하나가 아니니 그 모양이 같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나 다르지도 않으니 씨를 떠나서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또 씨와 열매는 단절된 것도 아니니 열매가 이어져서 씨가 생기기 때문이요, 그러나 늘 같음도 아니니 열매가 생기면 씨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씨는 열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열매일 때는 씨가 없기 때문이요, 열매는 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씨일 때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生하는 것이 아니요, 늘 같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滅하는 것이 아니다. 멀하지 않으므로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생하지 않으므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二邊을 멀리 떠났으므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 가운데 해당하지 않으므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할 수 없다(菓種不一 其相不同故 而亦不異 離種無菓故 又種菓不斷 菓續種生故 而亦不常 菓生種滅故 種不入菓 菓時無種故 菓不出種 種時無菓故 不入不出故不生 不常不斷故不滅 不滅故不可說無 不生故不可說有 遠離二邊故不可說爲亦有亦無 不當一中故 不可說非有非無).”[元曉, 『金剛三昧經論』(이하 ‘金剛’으로 약함), 卷中, 『韓佛全』, 제1책, 625-중-하].

면, 선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생의 죄업을 씻는 과정이다. 곧 선한 자가 고통을 받는 것은 전생에서 죄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며, 지금의 고통은 고통이라기보다 선업을 쌓는 과정이요, 다시 이 선업이 원인이 되어 나의 후생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업의 원리에 따르면, 내가 지금 생명을 해치는 것은 내 마음과 몸에 업으로 쌓이고, 문화유전자(meme)와 생물유전자(gene)에 깃들어 후손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라인은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계율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이 업을 면하기 위하여 참회를 하였다. 죄 중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라한을 죽이는 일은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질 다섯 가지 악행인 오역(五逆) 가운데 셋이며, 살생은 십악(十惡)에서도 으뜸이었다. 신라인은 내가 현생에서 지은 죄만이 아니라 전생이나 미래세에서 지은 살생의 업을 소멸하고자 목륜(木輪)을 던져 알아본 후 이 죄업이 있으면,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의 가르침에 따라 참회하였다.¹³⁾

다음으로 의상과 원효가 설파한 화엄의 연기론을 깨달으면 지혜가 생긴다. 그 지혜란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원인과 결과로 맺어지고, 서로 조건이 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아(我)란 없으며 공(空)임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오온(五蘊)의 가합태(假合態)에 불과한 것인데 나를 내세우고 동일성을 강화하면서 타자를 해하는 것은 나를 자

13) 현세에서 입과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전생의 업보가 있다면 아무리 선정을 하고 정진을 한다 해도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근심과 의심과 회한이 늘고 번뇌만 깊어지고 믿음을 잃고 불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명료하지 못하는 등 여러 장애나 어려움과 마주치면, 마땅히 점찰법을 수행해야 한다. 현세의 죄는 어느 정도 과악이 가능하지만 속세와 미래의 업보는 본인이 알 길이 없다. 이에 十輪相, 三輪相, 六輪相 등 3종의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나무 가락을 만들어 점찰한다. 전생에 지은 善惡業을 알고자 하면 10개의 나무 가락을 만들어 각각에 十善과 十惡을 써서 점찰하며, 과거에 지은 업보의 오랜과 가까움, 강함과 약함, 큼과 작음을 알고자 하면 3개의 나무 가락을 만들어 각각 나무 가락에 身, 口, 意를 쓰고 각 면에 굵거나 가는 줄, 길거나 짧은 줄 등을 표시하여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업보가 오랜 것인지 가까운 것인지 강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점찰한다. [『占察善惡業報經』 卷上. 『大正新修藏經』, 17卷, 經集部4, pp.5-8.]

성(自性)을 가진 존재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다.

연기를 깨닫고 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타자들,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 우주의 구성 성분들 모두가 ‘우리’의 범주에 들어온다. 길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두 사람이 제3자로부터 실은 두 사람이 이복형제라는 소리를 들으면 싸움을 중지하고 포옹할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독립투사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에서 보듯, 각 존재자는 우리의 범주에 들어온 타자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한다.¹⁴⁾ 더불어 이에서 더 나아가 이제껏 타자로 간주하던 다른 생명이 나와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서로 조건이 되는 또 다른 나라는 실상을 깨닫고서 동치대비(同體大悲)의 보살행이 생긴다. 유마경의 말씀대로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그러니,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자연스레 생명평화 사상과 보살행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현(大賢)은 불살생(不殺生)의 계율만이 아니라 육식을 금하며 유식지살론(由食至殺論)을 편다. “육식을 하면 중생들이 자비의 힘이 없이 생명을 살해하려는 뜻을 품기에 이런 연고로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다.”¹⁵⁾라며 자비의 마음과 힘을 상실하기에 육식조차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원효의 진속불이(眞俗不二)론을 응용하면, 더욱 생명의 윤리를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생의 마음은 본래 하늘처럼 청정하고 도리에 더러움이 없기에 중생은 이 생명과 저 생명을 경계를 지어 바라보지 않는다. 다만 본래 청정한 하늘에 티끌이 끼어 더러운 것처럼 무명(無明)에 휩싸여 경계를 지어 생명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본디 이 경계는 허망한 것이다. 이 모두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 생긴 것이니 만일 마음에 허망함이 없으면 곧 다른 경계가 없어지고 중생 또한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간다. 유리창만 닦으면 하늘

14) Doheum Lee, *Desire and Enlightenment in Korean Buddhist Folk Tales, and its Meaning in Our Times, Celibacy and Enlightenment/Salvation*, ICKS, July, 2007, p.163.

15) 대賢, 梵網經古述記, 卷4, 韓國佛教全書, 第3冊, 459-下: “衆生無慈悲力 懷殺害意 爲此因緣故斷食肉”.

이 다시 청정함을 드러내듯, 무명만 없애면 본래 청정한 중생 속의 불성이 스스로 드러나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이 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그를 위하여 그리로 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을 없애 주는 것이 바로 자비행이다. 타자를 구원하거나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 속에 숨어 있는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드러내며, 이 순간 나 또한 부처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 생명사상에 적용하면, 죽고 사라져 가는 생명의 아픔을 자신의 생명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조건이 되고 의지가 됨을 깨닫고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共感)하는 것이다. 죽고 병드는 생명들을 보면서 마치 내 몸이 죽고 병드는 것처럼 아픔을 공유하는 순간 내 몸 안에 자리하던 불성(佛性)이 드러난다. 이것이 생태계에 대한 깨달음의 눈이요[圓成實性], 이 순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둘이 아니요 하나요, 중생이 곧 부처다.¹⁶⁾

Ⅲ.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 운동

전남 남원 실상사의 회주이자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스님은 생명평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는 화엄연기론을 바

16) “空相이 또한 공하다”라 한 것은 ‘공상’이 바로 俗諦를 버리고 眞諦의 평등한 상을 나타낸 것이요, “또한 공하다”란 곧 진제를 융합하여 속제로 삼은 “空空”의 의미이니, 순금을 녹여 장엄구를 만드는 것과 같다. …… “또한 공하다”라 한 것은 이 속제를 다시 융합하여 진제로 삼은 것이니, 이것은 장엄구를 녹여 다시 금덩이로 환원시키는 것과 같다. …… 또 처음의 門에서 “속제를 버려서 나타낸 진제”와 제2의 공 가운데 ‘속제를 융합하여 나타낸 진제’인 이 2문의 진제는 오직 하나요, 둘이 아니며, 진제의 오직 한 가지로 圓成實性이다. 그러므로 버리고 융합하여 나타낸 진제는 오직 하나이다(空相亦空者 空相卽是遣俗顯眞 平等之相 亦空卽是融眞爲俗 空空之義 如銷眞金作莊嚴具 …… 亦空還是融俗爲眞也 如銷嚴具 還爲眞金…… 又初門內 遣俗所顯之眞 第二空中 融俗所顯之眞 此二門眞 唯一無二 眞唯一種 圓成實性 所以遣融所顯唯一). [元曉, 앞의 책, 639-下~640-上].

탕으로 『생명평화경』을 만들었다. 이는 A4용지로 채 두 쪽이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다. 짧지만, 이 안에 생명평화 세계관, 생명평화 사회상, 생명평화의 성찰과 참회, 생명평화의 인간상, 생명평화의 관점과 태도, 생명평화의 다짐을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함축하였다.

생명평화의 세계관은 이것과 저것이 조건이 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동적 인과관계를 이루는 연기적 세계관이다. 생명평화의 사회상은 나와 이웃, 나와 국가, 나와 세계, 나와 자연이 서로 의지하는 공존공영의 공동체이며, 모든 존재와 생명은 진리의 길에 있을 때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평화의 성찰과 참회 장에선 이런 연기적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 내 가족, 내 나라 중심으로 소유, 독점, 힘, 공격, 승리의 논리로 살아온 이기적 삶을 참회한다. 생명평화의 인간상은 생명의 실상을 달관하는 안목을 가꾸고 소박한 삶에 스스로 만족하며 진리의 삶을 사는 자다. 그는 자연을 병들게 하고 이웃을 불안하게 하는 이기적 삶을 버리고 이웃과 생명의 가치의 존귀함과 고마움과 위대함에 대하여 지극히 겸허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감사하고 찬탄하면서 진리의 삶을 산다. 이에 생명평화의 관점과 태도를 유지하며 항상 깨어 있으면서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사유하며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도법스님이 볼 때, 생명이란 그물의 그물코처럼 온 우주가 참여하여 이루어진 총체적 관계의 존재이자 지금 여기에서 상대와 조화로운 관계 속에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이는 홀로 분리되어 독립하거나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관계 속에 끊임없이 변화하며 존재하는 자기 존재이다. 너이면서 나이고 나이면서 너이며(自他一不二), 우주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우주인 영원과 무한의 자기 존재이다.

스님이 생명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지구 생명체의 40%가 절멸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는 누구에게나 닥친 가장 절실한 자기 문제이자, 국가, 종교, 이념, 진보, 보수 등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명들

은 서로 조건이 되고 깊은 연관관계에 있다. 생명들 모두가 에코시스템(eco-system)의 부분이자 전체일 뿐 아니라 서로 조건이 되고 연관을 맺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 관계 자체가 에코시스템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생명들이 홀로 살려고 다른 생명을 해치려 할 때 외려 모두 죽을 수 있다. 서로 공존공영의 상생을 모색해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 그러니, 생명은 평화와 상생의 보살행을 수행해야 한다.

도법 스님은 90년 11월에 승가개혁운동 결사체인 선우도량(善友道場)을 창립한다. 선우도량은 98년까지 매년 두 차례씩 총 14차례의 ‘수련결사’를 열어,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회복하고 교단의 승풍(僧風)을 진작시켰다. 94년에는 개혁회의 상임 부위원장직을 맡아 종헌·종법 개정과 승가 교육 개혁에 힘을 쏟았다. 그는 개혁회의가 해산한 직후 자신의 은사인 월주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을 뒤로 하고 실상사로 떠났다. 그리고 4년 만인 98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3선공방과 총무원 청사 점거 등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에 임명되어 중도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태를 수습하고는, 총무원장 등 모든 자리를 마다하고 다시 홀연히 실상사로 내려갔다.

2001년엔 지리산 달궁 계곡에서 ‘생명평화 민족화해 지리산 위령제’를 지내고, 이후 좌우의 이념대립과 개발에 쓰러져 간 숯한 사람과 생명을 위하여 ‘생명평화 민족화해 평화통일 지리산 천일기도’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3년엔 ‘지리산 생명평화결사’를 창설한다. 마침내 2004년 3월 1일엔 지리산 노고단을 출발하여 ‘생명평화탁발순례’의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스님은 2008년 12월 13일까지 장장 5년간에 걸쳐 전국 방방곡곡 총 1만2000여km(3만여 리)를 돌며 8만여 명의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그들에게 생명평화의 싹을 심었다. 한 줄로 서서 침묵하며 걷고 탁발하여 얻어먹는 그 자체가 고된 수행의 길이였다. 많은 이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저 깊은 속에 있는 생명을 중시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싹들에게 흙뻑 물

을 주었다. 이로 생명 평화사상은 대표적인 진보이념과 운동으로 자리를 잡고, 많은 풀뿌리지역운동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으며 이 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를 계기로 도법스님의 생명평화운동, 수경스님의 환경·생명운동, 법륜스님의 평화운동이 불교계를 넘어 전 사회에 걸쳐 도덕적 헤게모니를 갖게 된다.

도법스님은 우주와 자연과 내가 본래 공동체이기에, 인간 중심의 이기적 삶의 방식 자체가 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마을에 공동체를 만들려 하는 것은 마을이야말로 인류 문명사회의 원형이요 뿌리요 고향이자, 생명평화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람직하게 실현할 수 있는 마당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서로 이웃이 되어 서로 돕고 고통과 기쁨을 나누고 주민 스스로 서로 주체가 되어 주체적이면서도 자립적이고 창조적으로 자신을 실현하고 마을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99년 중단 사태 이후 실상사로 돌아온 스님은 이곳을 중심으로 대안의 공동체 건설에 매진한다.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은 귀농학교다. 1998년 3월 불교귀농학교를 개설하였고(현재 25기), 1998년 9월에는 실상사귀농(전문)학교를 개설한다(현재 23기). 두 학교를 거쳐서 농부가 된 이들은 500여 명에 달하며, 그 중 70% 정도가 실상사 주변에서 유기농 농사를 지으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1999년 9월11일 인드라망 생명공동체가 출범한다. 이 공동체는 도시와 농촌공동체 사이의 협력과 연대, 인드라망 세계관을 통한 총체적 생명위기에 대응하는 생명살림운동 전개, 삶의 양식과 문화양식을 총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인적 수행과 각성을 통한 깨달음의 사회화를 목표로 출발하였다. 지금 회원은 1,200명에 달하며, 불교귀농학교, 실상사귀농학교, 현장귀농학교를 중심으로 한 귀농운동, 인드라망 생활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생활협동조합운동, 실상사작은학교와 준비과정인 마을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안교육운동, 사단법인 한생명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운동 및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교계 최초의 대안학교인 실상사작은학교는 2000년에 설립하여

2011년 현재 11기에 이르고 있다. 처음엔 중학교 과정으로 출발하였으나 이제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5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 수는 총 45명 정도이며, 교사는 15명이다. 산자락의 작은 터전엔 입시지옥과 탐욕과 경쟁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울리고 명상을 하면서 생명과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노래하며 지낸다.

2002년 설립된 한생명은 인드라마 생명공동체의 남원과 함양지역 회원 138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 조직은 인드라마 제1실현지로서 산내면을 중심으로 한 생태 대안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한생명은 복지, 문화, 여성, 교육 등 지역 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한생명은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산내 족구대회, 대보름맞이 연날리기 한마당, 산내문화제, 실상사 사부대중공동체 나눔회합 수행의날, 청소년 및 어른 인문학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에 창립된 ‘인드라마 생활협동조합’은 사찰에 생협 매장을 만들고 생산자와 사찰, 회원을 연결시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매개자 구실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리산을 터전으로 삼고 실상사를 마당으로 하여, 한생명,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생협, 대안학교, 귀농학교, 스님과 학생과 활동가와 농부와 마을 주민이 서로 구분이 없이 인드라마 존재가 되어 상생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실상사사부대중 공동체의 실상이다.¹⁷⁾

2010년 6월 8일 도법스님은 원효의 화쟁철학을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불교계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화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같은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한진중공업 사태처럼 노동모순에 얽힌

17) 지금까지의 논의는 도법스님의 저서－『화엄경과 생명의 질서』(세계사, 1990), 『길 그리고 길』(선우도량, 1995), 『화엄의 길 생명의 길』(선우도량, 1999), 『청안청락하십니까』(동아일보사, 2000), 『내가 본 부처』(호미, 2004),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불광, 2008)－와 인드라마공동체의 이항민 사무총장, 한생명의 이귀섭 사무국장의 진술, 필자가 인드라마생명공동체의 전문위원과 실상사 화엄승가대학의 외래 교수로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문제 해결에도 생명 사이의 화쟁을 화두로 108배를 하고 법회를 하며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다.

IV. 수경스님의 환경·생명운동

서울 삼각산 화계사의 주지를 역임한 수경스님은 거의 목숨을 내걸고 자연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2000년에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과 범불교연대의 상임대표를 맡았으며, 2001년부터 불교환경연대의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에 뛰어들어 새만금 갯벌 간척 반대 운동,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등을 선두에 서서 이끌었다. 정부가 401km²에 달하는 광활한 새만금 갯벌을 간척하여 농토와 공업부지로 삼는 계획을 추구하였다. 이에 수경 스님은 지율 스님, 문규현 신부 등과 함께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8차 랍사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02년 11월 17일부터 25일에 걸쳐 대형사진 전시회, 플래카드 게시, 선전물 배포 등의 활동을 함과 동시에 3보 1배의 시위를 하였다. 이는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에 존엄성을 표하고 자신에 가하는 고통을 통해 생명 파괴행위를 참회하자는 취지였다.

수경스님은 새만금 갯벌을 지키기 위하여 초인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문규현 신부와 함께 2003년 3월 28일 부안 새만금의 해창갯벌을 떠나 5월 31일까지 65일간 총 305km를 3보 1배를 하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호소하였다. 긴장한 청년도 1km를 따라서 하고 한 달을 앓았다는 이 초인적인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는 수차례 혼절하고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으며 결국 휠체어에 의지하여 운동을 마쳤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연골이 거의 닳아버리고 몸이 훼손되어 그는 다리를 절고 시력을 잃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시작하자 그는 2008년 2월 11일부터 5월24일까지 100일간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한반도 대운하 반대 활동의 일환으로 ‘생명의 강 살리기 순례대장정’을 전개

하였다. 이들은 도보로 한강 하구를 출발하여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 낙동강 하구까지 경부운하 예정지를 돌아본 뒤, 이어 영산강과 금강 등 충청·호남운하 예정지를 방문하는 등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 전역을 도보로 직접 찾으며 참회하였다.

2009년 11월 5일에 스님 및 재가불자, 학자, 시민활동가, 언론인을 망라한 40여 명의 연구 집단을 결성하여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불교, 환경생태, 문화사회, 정치경제 등 4개 분과별로 나누어 연구를 하고 현장을 답사하였다. 참여자들은 2010년 3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생태적 발전을 위한 원칙과 4대강 사업’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 후 이 결과물을 보도 자료, 전단, 성명서, 소책자 등 여러 가지 판본으로 만들어 불교계와 시민사회에 배포하였고, 이는 불교세력 및 종단이 4대강 반대운동의 전면에 나서는 기폭제 구실을 하였다.

2010년 4월 17일에는 불교환경연대와 예코부터, 대한불교조계종의 주최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륙대재를 열었다. 이날 1,000여 명의 스님을 비롯하여 1만여 명의 불자들은 온 마음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명 아래 삶의 근간과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개발지상주의를 비판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천지가 모두 한 뿌리요, 만물은 모두 한 몸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절하고 참회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보살행으로 온 생명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정토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일심으로 소망하였다. 이어서 그는 4대강 댐이 건설되고 있는 여주의 강가에 여강선원(如江禪院)을 짓고 매일 기도하고 참회하며 매주 토요일 생명을 위한 수륙재를 열었다.

그러던 중 이에 영향을 받아 문수스님이 소신공양하였다. 2010년 5월 31일에 경북 군위군의 지보사 문수스님(세납 47세)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유서를 남긴 채 낙동강 독방에서 소신공양하였다. 유서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소신공양의 동기와 초점은 4대강 사업이다. 군위 지보사에서 무문관을 수행하던 문수스님은 4대강에 관한 문건과 정보를 접하면서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라는 유마경의 말씀대로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에 대해 동체대비의 자비심을 품고 이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반문해 오던 중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을 결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4대강사업에 온몸으로 저항해온 수경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스님과 불자만이 아니라 이웃종교인, 시민운동 진영, 진보진영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은 4대강 반대 운동에 불을 지피 ‘불교환경연대’, ‘4대강생명살림연대’를 중심으로 생명평화한마당, 108배 정진, 추모제, 49재행사가 이어졌고, 이 행사에 많은 불자와 대중들이 참여하여 생명의 고귀함과 소신공양의 의미를 가슴에 새겼다.

이를 두고 일부 불자와 스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또 하나의 살생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보살의 소신공양’(燒身供養) 편에서 소신공양에 관한 전거(典據)를 찾을 수 있으며, 굶주림에 지친 짐승을 위해 절벽 위에서 몸을 던져 위법망구(爲法亡軀)를 실현한 부처님 전생의 전례가 있다. 무엇보다도 깨달음이란 육신의 집착을 완전히 버릴 때 가능한 것인데, 문수스님은 무문관뿐만 아니라 일종식을 하여 몸을 비우고, 한 말 이상의 기름을 마시고 소신공양을 단행하여 육신을 말끔히 태우려 하였고, 그 극단의 고통 속에서도 편안한 표정을 남기었다.¹⁸⁾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을 하자 수경스님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서울 조계사에 서울선원을 세우고 여강선원에서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4대강 반대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의 영향으로 4대강 반대와 무상급식을 전면으로 내세운 6·2 지자체 선거에서 야권이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자 수경스님은 홀연히 잠적하였다.

18) 즐고, 「4대강 개발의 본질과 문수스님 소신공양의 의미」, 대한 불교조계종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위원회,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0년 8월.

이원규 시인은 “삼보일배로/이미 다 닳은 무릎 연골은/절뚝절뚝 온몸 뼈격거리면서 빛나는 사리요/오체투지로 더욱 침침해진 두 눈이야말로/마침내 살아 청청 진신사리”라고 노래했지만, 생명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흘리시던 스님의 눈물이야말로 진신사리 중의 진신사리였다.¹⁹⁾

V. 생명·환경운동의 공과 한계

다리를 절고 시력마저 잃은 수경스님 앞에서, 소신공양한 문수스님 앞에서 그 누가 감히 실천을 논하고 환경과 생명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운동은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진보를 이루며, 아무리 정당성이 확고하고 실천성이 담보된 운동도 받을 디디고 있는 사회 현실의 맥락에 따라 평가를 달리 하며, 당대에 성공한 운동도 역사 안에서 언젠든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운동을 평가하고자 한다.

도법, 수경, 문수스님이 펼친 생명·생태운동 및 평화운동은 무엇보다도 국민과 시민운동 진영에는 생태적 패러다임과 삶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불일불이(不一不二)처럼 새로운 생태론적 패러다임으로 혁신하여야 하고 이 패러다임에 따라 모든 사회 시스템과 제도를 엔트로피가 제로 상태인 순환의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강을 막아 얼마의 전기를 생산하고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땅 값이 얼마 올랐다는 데서 댐을 해체하여 그 강에 몇 마리의 은어가 올라오고 그런 강가에서 천렵을 하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로 발전, 경제, 부, 삶의 기준을 바꾸

19) 수경 스님에 관련된 사항은 불교환경운동연대 명계환 사무국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필자 또한 이 단체의 회원 및 자문위원으로 4대강 사업 반대와 관련하여 성명서와 진단, 보고서 등 수경스님으로부터 의뢰받은 글을 쓰고 다양한 집회에 함께 참여한 경험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고 국가에서 마을에 이르는 모든 시스템과 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개혁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스님의 운동은 대중들이 생태론적 패러다임을 갖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양한 장에서 이를 네트워킹을 하며 사회적 실천을 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불교계만으로 좁혀서 볼 때, 이들의 운동은 불살생의 계율과 연기적 생명론을 전 지구촌이 직면한 환경위기와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참다운 보살행을 실천한 전범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불교는 2,500년 전의 시간에 머물러 박제화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에 불교의 현대화 작업이 요청되었고, 이는 현재 중생들이 맞고 있는 삶과 그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로부터 불교 교리를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모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운동은 불살생의 계율과 연기적 생명론을 전 지구차원의 환경위기, 인간 중심의 산업화 및 자본주의화 및 무분별한 개발과 연관시켜 해석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 불교가 사회적 실천이 부족하여 대중으로부터 차츰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위한 보살행의 전범을 잘 보여주었다.

이 운동은 새만금 문제, 4대강 사업 등을 중요한 안건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환경과 생명의 문제를 사회적 담론으로 끌어 올렸으며, 생태론적이고 생명론적인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2011년 5월 28일 현재 구글에서 ‘문수스님’으로 검색을 하면 2,600,000개의 파일이 뜬다. 그는 도법과 수경스님과 달리 저서도, 이렇다 할 경력도 없이 젊은 나이에 소신공양을 하였다. 그런 그에게 관련된 기사나 글이 수백만 개에 달한다는 것은 정부의 언론 통제 속에서도 그의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운동은 저항의 화살을 바깥으로 돌리기보다 나의 고행을 통하여 내 안의 탐욕과 폭력성, 어리석음을 반성하자는 것으로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연기를 깨달으면 ‘육망의 자발적 절제’가

가능해진다.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시키거나 파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안은 우리가 일상에서 나와 타인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탐욕을 줄이고 전기를 절약하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운동은 대중들이 스스로 탐욕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실천의 길을 제시하였다.

특히 도법스님이 행하고 있는 사부대중의 공동체 운동은 산업사회와 자본제하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타자화하고 소외시키면서 환경오염을 심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대안의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사회주의 공동체는 사회는 개혁하였지만 개인의 깨달음이 따르지 않은 데 결정적 실패요인이 있었다. 숭한 기독교 공동체는 개인의 영혼을 거둬나가는 했지만 사회를 바꾸지는 못하였다. 특히,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각성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적 삶의 양식은 부족하였다. 이런 면에서 현실에 대한 각성을 바탕으로 하고, 생활과 수행과 일이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며, 인간과 못생명이 한데 어울려 모두가 본래 부처를 되찾자는 실상사 공동체는 양자의 한계를 극복한 공동체의 전형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으로 내부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재정 시스템의 마련, 원주민과 완전한 화합, 교육 프로그램의 혁신, 사회적 기업을 통한 경제 자립과 유기적인 도농공동체 완성, 진정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의 길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면 그 미래는 밝다.

하지만 운동에서 극복해야 할 점도 있다. 하나는, 개인의 깨달음과 시스템 및 체제의 개혁을 종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운동의 방향이 사회 및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로 향하지 않으면, 언젠든 제국과 자본주의, 토건 카르텔의 탐욕에 포획될 수 있다. 도법과 수경 스님의 설법을 듣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깨닫는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하지만 환경파괴, 전쟁과 살생, 착취와 소외를 야기하고 심화하는 것은 구조와 시스템이다. 환경파괴 문제를 예를 들더라도, 이것이 일어나는 원인은 산업화, 도시화, 인구증가, 자본주의 체제의 욕망증식과 확대재생산 메커니즘과 이로 인한 과잉소비의 산업 및 생활양식, 중심국과

다국적 기업의 제3세계 수탈 체제, 토건 카르텔의 탐욕 등이다. 연기를 깨달아 우리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것과 함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 체제와 시스템 자체를 뒤엎지 않는다면, 토건 카르텔을 해체하고 생태평화복지국가로 이 나라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세계 체제를 서양의 강대국과 제3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환경파괴는 인류 절멸의 길을 향해 계속 치달을 것이다.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정신으로 나의 깨달음을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개혁으로 향하게 하고, 사회를 개혁하였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곧 집착이라는 정신으로 나를 끊임없이 참회하며 완전한 깨달음의 길에 이르러 할 때 자타성불(自他成佛)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도법과 수경스님의 실천은 종교적으로 볼 때 지극히 숭고한 운동이지만, 운동의 차원에서 볼 때 정치경제적 분석과 실천의 부족으로 자칫 에코파시즘으로 전락할 수 있다. 도법과 수경스님이 나름대로 정치적 식견도 갖추고 있고 이에 대해 전혀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4대강 사업 반대 집회 때마다 연단에 올라온 스님이나 성직자의 일성은 정치성을 배제하고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관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총칼과 정보력이 없는 시민계층이 자본 및 국가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도덕적 헤게모니와 정의와 평화를 향한 열정이다. 간디의 사례처럼, 도덕성과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근본으로 해야 싸움도 정당성을 갖고 끝없이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새만금도, 4대강도, 지리산 댐도 모두 정치적 관점과 장기집권의 술책에서 시작되었다. 생명을 죽이고 갈등과 전쟁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정치적인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현장에서, 정치적 관점을 포기하는 그 순간 싸움은 이미 패배를 상정한 것이다. 더구나 이는 자신들만의 고귀한 싸움, 혹은 자기만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정책에 정치성이 스며들고 권력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대 사회에서 정치성을 배제하는 그 자체가 정치적이다. 생명을 죽이고 갈등을 조장하고 양극화와 소외를 심화하는 체제 및 시스템을

뒤엎는 운동이 따르지 않는 생명평화운동은, 조선조의 목숨을 건 선비의 상소가 외려 조선왕조를 500년 동안 유지시킨 기제로 작용한 것처럼, 체제를 공고히 하는 개량적인 작업으로 변할 수 있다. 정치경제적 관점과 저항을 수반하지 않는 생명운동은 ‘운동의 (종교적, 혹은 사상적) 순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모든 저항을 무력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 십상이다. 구체적 실천과 저항이 빠진 불교적 대안은 동양의 신비주의나 성현들의 은유 놀이에 빠질 수 있다.

정치적 전략으로서 단기적으로는 환경을 보호하는 자들을 지방의회 의원 및 군수로 선출하는 운동을 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개발이 지역주민의 협치(協治)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적 전략으로서 개발이익에 현혹되어 이를 지지하는 주민들을 깨어있는 주체로 의식화하고, 토건 카르텔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생태적 순환이 가능한 도농공동체(都農共同體)를 곳곳에 세워야 한다. 사회문화적 전략으로 과도한 욕망이 외려 불행을 야기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섬기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모든 생활의 장에서 생태론적이고 생명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제 개인 또한 ‘연기적-주체’가 되어 나의 삶이 다른 타자들, 나아가 모든 생명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를 위하여 나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그들을 더 자유롭게 하는 실천 속에서 실존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주체성을 확인하며, 이런 순간 희열을 느끼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평화적으로 모든 것을 아우르되, 더 큰 아우름을 향하여 이를 방해하고 억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해, 대중이 깨달음에 이르고 비판적이고 소통적이며 생태적인 합리성으로 각성을 하는 것과 구조와 시스템의 개혁이 ‘함께 화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²⁰⁾

20) 졸저, 앞의 책, 307쪽.

VI. 맺음말

이처럼 한국 불교는 원효와 의상, 대현과 같은 고승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삼국시대 이래 체계적인 생명과 생태 사상을 펼쳐왔고, 이는 현재에까지 계승되어 도법과 수경 스님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실천되고 있다. 한계도 보이지만, 이는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을 통하여, 실천 속의 시행착오와 성찰을 통하여 개선되리라 본다.

우리가 이 세계를 자연과 인간으로 나눈 후 인간에게 우월권을 주어 자연을 인간의 의도와 목적대로 개발하고 착취하는 것을 문명 내지 근대성이라 불렀다. 이처럼 실체론과 이분법이 만든 폭력적 서열 제도로부터 환경위기가 비롯되었다고 볼 때, 이를 넘어서서 에코시스템에 있는 모든 존재를 연기의 관계로 파악하는 불교는 대안의 패러다임이다. 의상의 화엄사상, 원효의 화쟁, 대현의 유식지살론 등은 생명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며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기에 이에 대한 윤리는 무엇인지, 더 나아가 우리가 마주친 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실천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의 빛을 비춘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조차 지금 나의 삶에 관계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깨달으면, 생명의 죽음과 자연의 파괴를 행할 수 없다. 모든 죽어가고 사라지는 것에 공감을 하면 타자에 대한 폭력은 사라지며, 더 나아가 그들을 살리기 위한 정 의로운 실천이 가능해진다.

참고문헌

金富軾, 『三國史記』.

『古察善惡業報經』 卷上, 『大正新修藏經』, 17卷, 經集部4.

大賢, 『梵網經古迹記』, 卷4,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編, 『韓國佛教全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元曉, 『金剛三昧經論』,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編, 『韓國佛教全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義湘, 『華嚴一乘法界圖』,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編, 『韓國佛教全書』, 서울: 동국대출판부, 1979.

김성철, 「불교의 생명 개념과 불살생계」, 『불교평론』, 제37호, 2008, 170-193쪽.

도법, 『화엄경과 생명의 질서』, 서울: 세계사, 1990.

도법, 『길 그리고 길』, 서울: 선우도량, 1995.

도법, 『화엄의 길 생명의 길』, 서울: 선우도량, 1999.

도법, 『청안청락하십니까』, 서울: 동아일보사, 2000.

도법, 『내가 본 부처』, 서울: 호미, 2004.

도법,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 서울: 불광, 2008.

서재영, 『선의 생태철학』, 서울: 동국대출판부, 2007.

이도흠, 「문명사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불교평론』 40호, 2009년 가을호. 42쪽.

이도흠, 「생명 위기의 대안으로서 불교의 생명론과 생태론」, 『생명의 이해-생명의 위기와 길찾기』, 서울: 동국대 출판부, 2011, 279-285쪽.

이도흠, 「4대강 개발의 본질과 문수스님 소신공양의 의미」, 대한 불교조계종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위원회,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0년 8월. 25-44쪽.

Digha Nikaya(The Long Collection), translated from the Pali by Thanissaro Bhikkhu(www.accesstoinsight.org/tipitaka/dn/dn.15.o.than.html)

Encyclopaedia Britanica, *Macropedia*, Vol.10., 1975, pp.893-894,

Lee, Doheum. “Desire and Enlightenment in Korean Buddhist Folk Tales, and its Meaning in Our Times”, *Celibacy and Enlightenment/ Salvation*, ICKS, July, 2007. pp.155-171.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Fight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New York: 2007.

www.icun.org/about/work/programmes/species/red_list/index.cfm?NewsID=1695

ABSTRACT

Ecological Application of Korean Buddhism and Its Contemporary Practices

Lee, Do-Heum

We face a global environmental crisis. Korean Buddhism offers the world wise and practical alternatives with which to meet this challenge. Addressing this possibility, this essay applied the Korean Buddhist philosophy of Wonhyo, Euisang, and Deahyun to ecology. It also examined the prospects and limitations of the practices that Reverend Dobeop and Rev. Sugyeong actively implemented in their life advocacy and environmental movemen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neither-the-same-nor-different (bul-il-bul-i)*” contained in Wonhyo’s philosophy of Hwajaeng (和諍, *harmonization*) Buddhism, we can explain the connection between living beings and nature. The application at this point of Wonhyo’s “Discourse on the Non-Duality of Truth (Buddha) and Convention (sentient being)” opens a path through which it is possible to firmly establish a system of life ethics.

The ecological movement, the peace movement, and the lives of Rev. Dobeop and Rev. Sugyeong have rendered many contributions. Firstly, these movements opened up new prospects for citizen movements through their exploration of ecological paradigms and the concept of an ecological lifestyle. Secondly, these movements offered an opportunity to link the Buddhist thought of life and theory of interdependent arising

to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and to find a solution through that connection. Thirdly, these movements converted the cases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nd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into a social discourse regarding environmental and lifestyle issues. Fourthly, these movements promulgated the value of life. Fifthly, these movement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people to engage in a form of communal self-reflection. Lastly, Rev. Dobeop's community movement presents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model to a modern society.

However, these movements demand certain improvements as well. For one, there is a need for the synthesis of systemic or structural reform and individual enlightenment. If we are compelled toward an awakening to the fundamental oneness of all creation through a conscientious social reformation, then at that time the enlightenment of the individual might make possible the simultaneous awakening of the community.

Keywords: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Korean Buddhism, Dobeop, Sugyeong, Wonhyo, Euisang, Deahyun, Ecology